

클래식 명곡 산책 - 10 - 관현악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악기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그 음악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악기들이 모두 모여 합주하는 관현악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관현악은 웅장한 규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특히 교향곡과 같은 장대한 내용을 가진 작품들은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가장 유명한 교향곡인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영화 '조스'로 유명한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을 비롯한 국내에서 자주 연주되는 네 개의 교향곡, 그리고 관객의 호응도가 높은 관현악곡인 홀스트의 <행성> 등을 소개합니다. 이번 달에는 관현악의 매력에 깊이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 루트비히 판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교향곡 5번 '운명'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1807)

'따따따따-ㄴ'으로 시작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지겨울 정도로 유명한 곡이지만, 이 곡이 지닌 시대를 뛰어넘는 독창적인 요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따따따따-ㄴ'에 있죠. 이 주제는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는 의미로 알려지면서 곡 전체가 '운명 교향곡'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요, 교향곡의 제1주제가 겨우 두 개의 음정과 네 개의 음표로 구성된 단 두 마디라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매우 강박적이고 편집증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죠. 서정적인 제2주제가 등장할 때에도 운명의 주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제2주제를 집어삼키며 운명

그림 1. 관현악단 / 출처 : wikipedia.org

에 굴복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악장에서도 변형된 리듬으로 등장한다는 것도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한 것이었죠.

이렇게 1악장의 비통한 주제가 마지막에 밝고 웅장하게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이 곡의 진정한 주제는 ‘승리’라고 여겨지곤 했습니다. ‘V’의 모스 부호를 ‘따따따-나’와 동일한 리듬인 ‘•••—’으로 정의한 것이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BBC가 영국의 승리를 기원하며 정기적으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방송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각 악장을 보면, 운명이 엄습하는 1악장, 이에 굴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는 2악장,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3악장, 승리를 쟁취하는 4악장으로 각각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군요.

그리고 유례없는 대규모 편성도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당시 교향곡의 규모가 커지면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혼, 트럼펫, 팀파니를 한 쌍씩 편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현악기의 수도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베토벤은 여기에 피콜로와 콘트라바순을 한 대씩 추가하고, 게다가 트롬본은 세 대나 등장합니다. 이들은 마치 승리의 순간을 위해 준비한 듯, 모두 4악장에서 모습을 드러내죠. 특히 트롬본은 큰 음량과 함께 화성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짜릿한 쾌감을 전달하는 주역입니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앞서 설명한 운명의 주제로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이 주제는 이 곡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느린 2악장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상승하는 금관의 연주가 인상적입니다. 이 희망찬 주제는 운명의 주제를 느리게 연주한 것입니다. 3악장은 전투가 벌어진 듯 호른이 강하게 주제를 제시합니다. 이 역시 운명의 주제 리듬을 넣어놓은 것이죠. 이 악장은 ‘스케르초’ 형식으로서, 첼로와 더블베이스의 민첩한 연주로 시작하는 중간 부분이 등장하고, 다시 첫 부분으로 돌아옵니다. 씬 없이 이어지는 4악장은 눈부시게 도약하는 금관의 팡파르로 시작하며, 승리를 만끽하는 축제 분위기로 마무리합니다. 이 역시 운명의 주제를 변형한 것입니다.

♣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1833~97)

교향곡 1번 Symphony No. 1 in C minor, Op. 68 (1876)

19세기 독일 작곡가들은 베토벤을 존경하면서도 베토벤과 구별되는 방법을 찾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베토벤의 모방에 가까운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이후 교향곡을 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기도 했죠. 브람스가 1855년에 첫 교향곡을 스케치하고 나서 무려 20년간 이어가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브람스는 “거인의 발자국 소리를 등 뒤에서 언제나 듣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베토벤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에 필적하는 혹은 능가하는



그림 2. 루트비히 판 베토벤 / 출처 : wikiped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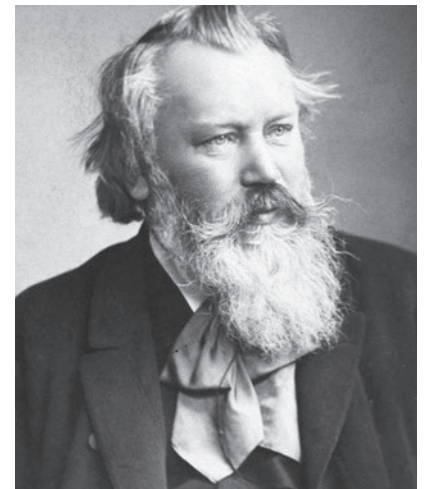


그림 3. 요하네스 브람스 / 출처 : themagsantafe.com

작품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친 신중함을 불러온 것이죠.

그런데 브람스는 결국 베토벤다워지는 선택을 한 듯합니다. 1876년에 <교향곡 1번>이 발표되었을 때, 당대 최고의 지휘자였던 한스 폰 뷔로가 이 곡을 ‘베토벤의 교향곡 10번’이라고 부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고전적인 양식을 따른다는 점이나 4악장에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4악장 ‘환희의 주제’를 연상시키는 선율이 있다는 점도 그렇지만, 베토벤의 음악적 사상인 ‘승리의 도그마’, 즉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승리하여 영웅이 되는 과정이 브람스의 첫 교향곡에도 나타난다는 점은 브람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베토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곡이 많은 작곡가들의 범작과 다른 이유는 본질적으로 개성적인 음악언어를 갖추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승리의 과정이 영웅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에 가깝다는 점에서 베토벤과 구별됩니다.

1악장은 제1바이올린 선율의 비극적이고 힘찬 서주로 시작합니다. 이 선

옴은 팀파니의 연타가 제시하는 박자를 벗어나고, 또한 긴 호흡으로 음계를 연주하여 전통적인 선율 작법과도 사뭇 다릅니다. 2악장은 브람스적인 서정미와 감미로움이 가득합니다. 평화와 위안이 주된 분위기지만, 마치 깊은 숲에서 길을 잃은 듯한 불안함과 그 안의 신비로움도 간간히 만날 수 있죠. 화려하게 장식하며 연주되는 바이올린 독주도 큰 인상을 남깁니다. 3악장은 소박하고 안정된 독일인의 모습이며, 4악장은 1악장처럼 서주가 있는 소나타 형식입니다. 상당히 긴 서주는 이상향에 들어서서 마지막 관문처럼 보입니다. 여러 역경을 헤치면 알프스 호른이 연상되는 호른의 멜로디가 등장하며 이상향의 문이 열리고, 베토벤의 '환희의 주제'가 연상되는 제1주제가 바이올린으로 제시됩니다.

🌿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Pyotr Tchaikovsky (1840~93)

교향곡 4번 Symphony No.4 in F minor (1877~78)

브람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도 초기에 신고전주의적인 교향곡을 썼습니다만, <교향곡 4번> 이후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소나타 형식과는 달리, 1악장에서는 2주제가 명확히 1주제와 대비되지 않으며, 또한 '제시부-발전부-재현부'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1악장은 러시아 후기 낭만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차이코프스키는 개인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약혼녀와의 결혼이 무산되고, 동성 애인이 갑작스럽게 결혼했으며, 충동적으로 했던 결혼을 했지만 불과 6주 만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77년에 홀로 스위스에 요양을 떠났고, 이곳에서 <교향곡 4번>을 작곡했던 것입니다. 그는 1악장에 자신의 고뇌와 삶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후원



그림 4.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 출처 : biography.com

자였던 나데즈다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차이코프스키는 시작 부분의 무거운 금관 팡파르 주제는 '운명'을 뜻한다고 썼습니다. "운명의 힘은 행복을 얻으려는 노력을 방해합니다. ...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허무한 슬픔의 노래만 있을 뿐입니다." 작곡가 세르게이 타네예프에게도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염두에 두었다고 말했죠.

이 곡의 1악장은 운명을 상징하는 금관의 주제와 왈츠풍의 주제가 등장하며, 느슨한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악장은 차이코프스키의 모든 교향곡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악장으로, 이러한 이유로 타네예프는 세 개의 악장이 뒤에 붙어있는 교향시 같다고 말했습니다. 2악장은 오보에 선율의 멜랑콜릭한 분위기가 지배하며, 3악장은 피치카토로 연주하는 현악 앙상블과 다성부적인 목관 앙상블, 그리고 리드미컬한 금관 파트가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유머러스한 악장입니다. 4악장은 개선행진곡과 같이 힘차고 소란스럽습니다. 러시아의 민요인 <들판에 자작나무가 서 있네>가 주제로 사용되어 친근함도 더했죠. 하지만 앞의 악장들과 균형이 다소 맞지 않을 정도로 몰아치는데요, 이러한 돌발적인 피날레는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는 제정 러시아의 분위기에서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 안토닌 드보르자크 Antonín Dvořák (1841~1904)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Symphony No. 9 in E minor 'From the New World' (1893)

체코 작곡가인 드보르자크는 그의 유명한 작품들 대부분이 미국 체류 기간인 1892~95년 사이에 작곡된 것이 많습니다. 이 기간은 뉴욕 국립 음악원 원장으로 재직했던 때로, 작곡가로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했죠. 이때 작곡된 곡들은 체코의 음악과 미국의 음악이 혼합되어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892년에 미국에 들어오면서 흑인영가에 대해 미국 음악의 미래이며 미국적인 음악을 쓰는 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죠. 또한 인디언 음악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1893년에 작곡된 아홉 번째 교향곡에 대해서 드보르자크는 인디언 음악의 특징을 담은 주제를 전통적인 서양음악의 언어로 작곡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흑인영가를 완전히 배재했다고 보기 어렵는데, 드보르자크는 흑인영가와 인디언 음악, 심지어 스코틀랜드의 음악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공통으로 갖는 5음 음계 때문으로 보입니다.

드보르자크는 뉴욕 필하모닉의 위촉으로 <교향곡 9번>을 작곡했으며, '신세계로부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체 네 악장 중 특히 2악장과 4악장이 유명합니다. 2악장은 관악기의 따뜻한 화음으로 진행되는 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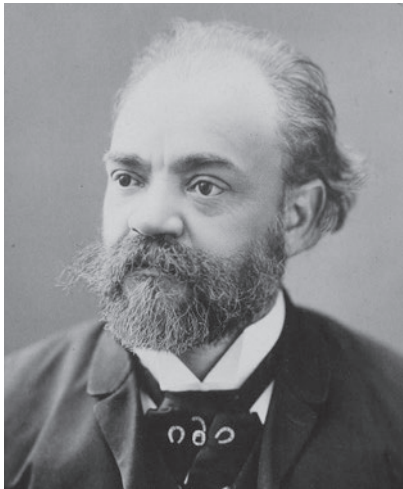


그림 5. 안토닌 드보르작 /
출처 : awestruckwanderer.wordpress.com

가 끝나면 잉글리시 혼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잉글리시 혼'은 오보에보다 길이가 조금 더 길고 깊은 음색을 가지고 있죠. 바이올린이 이어받아 심각한 분위기로 변형되지만, 다시 잉글리시 혼이 평안하게 매듭을 짓습니다. 플루트와 클라리넷의 불안한 이중주 후, 첼로의 피치카토 반주에 목관의 새로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대초원의 새벽의 신비로움을 표현하며, 이어 정적을 깨는 오보에의 기상 신호와 함께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다시 잉글리시 혼의 주제가 등장하며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4악장은 서주 부분이 영화 '조스'의 주제 음악으로 사용되어 특히 유명하죠. 또한 바로 등장하는 금관의 당당한 팡파르 주제 또한 통쾌하고 매력적입니다. 이후 전곡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심벌즈 소리와 함께 적막한 숲속에 들어선 듯 고요한 클라리넷 주제가 들려옵니다. 이 두 선율을 바탕으로 소나타 형식으로 전개되면서, 앞의 다른 세 악장의 선율도 등장하여 거대한 대단원으로 마무리합니다.

🌟 구스타브 홀스트 Gustav Holst (1874~1934)

'행성' 모음곡 The Planets (1914~16)

영국 작곡가인 홀스트가 '행성'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관현악곡을 쓰게 된 것은, 1913년 봄에 작가인 클리포드 백스가 소개한 점성술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힌두교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여럿 쓸 정도로 종교적인 신비주의에 큰 관심을 가졌던 그였던 만큼, 점성술 역시 그가 충분히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였죠. 특히 점성술사 앨런 레오의 '점성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탐독했는데, <행성>의 각 곡에 붙어있는 부

제들은 바로 이 책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홀스트의 <행성>은 우주에서 바라보는 천문학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점성술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 작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곡의 순서도 태양 중심이 아니라 지구에서 가까운 순서로 배치되었습니다.

첫 악장 '화성: 전쟁을 가져오는 자'는 군대와 같은 압도적이고 강력한 리듬이 등장합니다. 행진곡의 분위기지만, 사실 전형적인 행진곡 박자인 4/4박자가 아닌 5/4박자입니다! '금성: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 따뜻하고 여유로우며, '수성: 날개 달린 메신저'는 다양한 박자 변화와 리듬으로 만드는 음악적인 유희가 돋보입니다. '목성: 즐거움을 가져오는 자'는 화려하고 스케일이 크며 낙천적인 곡으로, <행성> 중에서도 가장 유명합니다. 특히 첫 주제가 한 뉴스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되었죠. '즐거움을 가져오는 자'의 음악을 뉴스에 사용했다는 것은 놀라운 안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토성: 옛 시대를 가져오는 자'는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신비로운 화음이 지배하며, '천왕성: 마법사'는 다급한 부정 리듬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하지만 '해왕성: 신비주의의 자'는 모호한 화음의 움직임과 가사가 없는 여성 합창으로 별들의 신비를 노래하며 차분하게 마무리합니다.

<행성>은 초연 이후 큰 인기를 얻었으며, 엘가의 <첼로 협주곡> 다음으로 가장 자주 연주되는 영국의 관현악곡이 되었습니다. 홀스트는 가장 인기가 높은 '목성'을 가장 맘에 들어 하지 않았고, '토성'을 가장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곡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



그림 6. 구스타브 홀스트 / 출처 : michaelshirrefs.net